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담양군, 환경·경관 위해시설 제한 조정

업종 세분화·거리제한 현실화 조례 개정

담양군은 관내 환경·경관 위해 시설의 입지제한과 관련해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군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환경과 경관위해시설의 입지를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주요 도로 경계에서 1,800m'로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업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거리제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경관 위해 시설의 입지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 지난 7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군은 이와 함께 군민 5,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주민 거주지 주변 위해시설의 종류와 거리, 위해시설로 인한 영향

및 강도, 위해시설별 제한거리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95.4%(5,070명)가 설문에 답했으며 이 중 위해시설로 인한 영향 및 강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위해시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위해정도는 영향이 있다 88%, 보통이 11.8%로 대부분 주민이 환경 위해시설로 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시설의 영향으로 피해 정도가 심해 참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5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민이 원하는 업종별 적정 제한거리는 레미콘공장 2,000미터(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퇴비화공장(42.9%)과 골재·석재공장(44%)은 2,000미터, 폐기물 처리공장 등도 2,000미터 이상의 거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가장 높았다.

협력단은 지난달 30일 최형식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최종보

고회에서 용역결과와 군민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제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협력단이 담양군에 제시한 제한거리 권고안은 레미콘 공장은 부지 경계선에서 650m, 폐기물(페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처리공장과 골재석재 공장 등은 1,250m, 퇴비화 공장 등 1,500m, 기타 환경시설 등은 500m 또는 사업별로 개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단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담양지역의 대기오염·조미세먼지 발생상황과 개선방안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위해시설의 입지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업종별 여건과 지역민의 요구를 면밀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담양군은 협력단이 제시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설별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명품 딸기 본격 출하



화순군은 지난 11월 20일 명품 딸기 첫 출하를 시작으로 매일 3톤 이상 생산하여 광주·부산 도매시장 등 60% 광주·북포 이마트 30% 로컬푸드·작거래 10%의 비율로 소비자

들과 만나고 있다. 화순 '명품 딸기'는 전국 딸기 재배단지 중 가장 앞선 다양한 선진농업 기술을 실천하고 있고, GAP인증 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군에서는 '골고루 풍요로운 부지농업'을 위해 고품질 '명품 딸기' 생산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도비를 확보하여 '딸기 우량묘 보급 체계 개선 시범'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딸기 재배에 가장 중요한 특정한 우량묘를 생산, 보급할 계획이며,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하여 생산한 딸기 원원묘를 12월 4일 분양반이 저온저장고에 저장 후 내년 4월에 정식 후 모주를 생산할 계획이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최고 '명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구축으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진도 서망항, 해수부 '국가 어항 평가' 우수

어항 환경정비·시설물 유지 관리 등 높이 평가

진도군 임회면에 위치한 '서망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어항 운영·관리 최종 평가'에서 전국 110개소 국가 어항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기획재정부 재정개혁과제로 선정된 국가어항 관리 평가제 도입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어항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투자 효과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국의 지치단체가 응모해 1차 서면·현지실태 평가와 2차 현장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확보했

다. 군은 어항 환경 정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어항관리협의회 운영 등 국가어항 운영·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 담당 관계자는 "국가어항인 진도 서망항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중앙부처 평가에서 인정되어 이번엔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진도 서망항은 100% 통발을 이용해 잡는 남도 제일의 꽃게 산지로 전국 공급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는 꽃게를 여름에는 오징어 겨울은 조기가 연중 위판되고 있는 국가 어항이다.

이동진 군수는 "진도 서망항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아름답고 쾌적한 어항,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편리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 서망항은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1986년 국가어항으로 승격돼 1991년 기본 시설을 완료했으며 2002년부터 진도군수협 서망 위판장 개장 이후 연근해 조업 어선의 이용이 매년 급증하고 전남 서남해안의 대표 어항 중 하나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농협 '지도사업 선도농협 대상' 수상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정례대회 시상식에서 '2018년 지도사업 선도농협 대상'을 수상했다.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은 지도사업 활성화 및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지난 3년간 지도사업추진이 가장 우수한 농협에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11개 농협연합회가 수상의 영광

을 안았으며, 특히 광주, 전남권에서 영암농협만이 단독 수상하며 눈길을 끌었다.

영암농협은 상과 함께 무이자 자금 20여만원과 직원승진의 특전을 받게 된다.

이번 대상 수상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천황사 경관단지를 통한 농촌관광 자원화, 지자체 협력사업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

대, 농촌인력 중개사업, 농가별 품목교육, 폐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소비시장 발굴등 여러사업을 추진해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고령 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인 한방 무료진료,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영농자재지원 사업등 농업인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등 실질적인 실익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영농지도사업 여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은 "영암농협 2300여명의 조합원분들과 박찬직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사회 공헌 등의 열정적인 노력이 전국을 대표하는 농협으로 평가받았다."며 "조합원의 복지와 소득증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영암농협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경주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단기 스포츠 체험으로 체육복지 수준 높여

경도리조트서 복지시설 아동 60여명 승마 등 체험



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체육복지 수준을 높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도리조트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미 수혜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단기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여 아동들은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롤러스케이트, 볼링, 바다낚시

승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를 체험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스포츠강좌 수강료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스포츠 강좌시설과 거리가 멀거나 인근에 시설이 없어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단기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 활동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며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